

YULIA IOSILZON

율리아 아이오실존

꿈속 풍경을 옮겨놓은 듯 화사한 색과 유려한 형태가 어우러진 율리아 아이오실존의 작품. 고대 신화와 도상학, 유년 시절 읽은 만화 등 여러 문화와 시대에서 가져온 이미지와 상징을 자유롭게 엮어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심리와 실존,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 사회에 대한 질문이 숨어 있다. 인물과 동식물이 서로 뒤섞이고 모습을 바꾸는 변형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중요한 방식이다. 8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파운드리 서울에서 열리는 개인전 <무중력>에서는 이 이야기를 자연과 생태계로 확장해 회화와 세라믹 모자이크, 새롭게 선보이는 패브릭 조각으로 펼쳐 보인다.

PICK 2



Photo by Deniz Glizel. Courtesy of the Artist and Foundry Seoul.

The Places in Between, 2026.